

# 예수의 비유

## *The Parables of Jesus*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 13:34-35)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막 4:10-13)

『비유(παραβολή 파라볼레)』는 『(παρά 파라, 곁에, 근처에, 나란히)』와 『(βάλλω 발로, 던지다)』 두 단어(單語)의 합성어(合成語)이다.

그 뜻은 『나란히 던지다』는 것이다. 막대기를 두 개 『나란히 던져서』 두 막대기를 서로 비교하며 공통점(共通點)과 차이점(差異點)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는다는 뜻이다.

성경의 비유(比喩)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유를 해석(解釋)하면서 율법적(律法的)인 결단을 촉구하거나 삶의 지혜(智慧)를 찾으려는 접근(接近)은 모두 그릇된 것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하고 가르치셨다(막 4:11, 13).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대표적인 천국비유(天國比喩)이다. 이 비유에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 『좋은 땅』은 『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 옥토(沃土)가 되자』는 율법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이 비유(比喩)를 전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사 6: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사 6: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外人)들에게는 감추셨을까? 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引用)하시면서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묘사한 역설적(逆說的)인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가 비유(比喩)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 생명(生命)의 열매를 결실(結實)하기 원하신다.